

“ 나는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

■ 이종윤 원로목사

종에게 무슨 명예가 있습니까. 종은 이름도 없습니다. 부리기 위해서 바위라든가 공쇠농같은 별명이 있을 뿐 이름이 없으니 명함이 있을 리 없습니다. 남이 알아주면 은혜요 알아주지 않아도 고마울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종에게 내 것이 없으니 스스로 이룬 것은 더더욱 없습니다. 나 자신이 주의 소유물인데 내게 무슨 소유권이 있으며 등기부에 올릴 이름 석자가 없는 주체에 내 소유 내가 한 일이란 가당치 않은 말입니다. 시간도 심지어 생명도 내 것이 아닙니다.

종에게 고난은 가지지 말아야 할 것을 가지려고 할 때입니다. 알지 않아야 할 자리에 앉으려고 할 때 견디기 어려운 시련이 옵니다. 매를 맞고 누명을 쓰고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손발이 절단되고 죽임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것이 종입니다. 종에게 무슨 인권이 있고 자격이 있고 권리가 있었습니까. 천부당만부당한 말입니다.

종은 언제 어디서 왜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를 주인에게 따지거나 제 의견을 앞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루 종일 발 갈고 양을 치고 돌아와서는 주인의 식탁을 준비하고 그가 먹고 마시는 것을 시중 들어야 합니다. 일하라면 하는 것이고 밤을 새우라면 새우는 것뿐이지 거기에 거절이나 불평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듀로스)이라고 불렀습니다. 헬라어로 듀로스는 노예를 말합니다. 노예는 주인의 뜻에 절대 순종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주인의 뜻을 이루고 주인을 기쁘게 할 뿐입니다. 겨자씨만한 순수하고 생명력 있는 믿음은 이같이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자기를 내세우거나 자신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노예에게는 지혜도 능력도 없습니다. 주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요 그것이 능력인 것입니다.

무익한 종에겐 보상도 없습니다. 무엇을 이룬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기적을 일으켰다 해도 모두 주님께서 하신 것뿐입니다. 나는 그 분의 도구로 쓰임 받은 것을 감지덕지 할 뿐입니다. 보상이 없다면 알아서라도 주셔야 할 터인데 종에겐 그런 보상심리는 애초부터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종은 무엇을 소유해서도 보상을 기대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길 뿐입니다.

종에겐 상대적 감사나 순종이 아니라 절대 감사, 절대 순종이 있을 뿐입니다. 힘들다고 불평하거나 원망은 없습니다. 받았으니 감사가 아니라 없어도 빼앗기고도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서 내 뜻대로 일이 안되고 남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섭섭히 생각하고 뒤로 물러서는 이는 주님의 종이 아닙니다. 내 맘대로 안되고 남의 인정 없어도 주님 명령에 순종한 것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칠 만큼 수고를 하고도 한 것이 없다는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합리적 사고를 하는 서양인들에게 이해가 어려운 표현입니다. 어찌 보면 경직하지 못한 지나친 겸양이라 할 지 모르나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 이에겐 어떤 일이 닥쳐와도 불평이 없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무엇이나 부족하고 주고도 부족하고 오히려 죄송해 하는 마음 그것이 무익한 종의 자세입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니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마음과도 같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이는 남을 실족케 안 할 것이며 다른 형제의 과실을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의 장부가 될 것입니다.

-한국장로신문 2011년 8월 6일 발췌-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한해의 전반이 마무리 되어 가는 6월의 세번째 주일입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교회에서의 대면예배가 많은 성도들의 참여하에 은혜롭게 드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두주간 새벽마다 흥해작전 새벽기도회가 담임목사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주 월요일부터는 흥해작전 마지막 주간 특별새벽기도회가 새벽 5시에 시작됩니다.

모두들 이웃과 다락방 식구들의 손을 잡고 새벽을 함께 깨우며 주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와 말씀의 잔치 흥해작전 마지막에 부여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주일 1,2,3부 및 찬양예배 시간에 제공되는 실시간 온라인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실시간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이전과 같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ziHchZPo8YwmR9UYpoxJrA>

주일예배 순서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 예배 순서 및 영상예배 지침

http://www.seoulchurch.or.kr/upload/20220619_sermon.jpg

서울교회 당회 드림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 of on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QR코드 
	부 목 사 장석남 조원영 안용근 조동수 김익환 전도사 박미라 준전임전도사 강남희 이대원 교육전도사 허은 정기성 김예지 협동목사 심우진 전재홍 양정호 선 교 사 전광혜(서아시아), 이은준 · 강해경, 양재성 · 이현주(카자흐스탄), 이경엽, 조남혜(방글라데시), 조범연 · 김희정, 우상식 · 김정욱(인도), 서광중 · 이성일(인도네시아), 김용진 · 황경혜(말라위), 김영호 · 서향정(러시아), 허창범 · 현미순(일본), 김낙형 · 오정녀(케냐), 김종일 · 백순미(외국인 노동자), 박명성(총회), / 이삭, 비스타파, 사지, 에녹(인도), 스프로토바로이, 필리몬, 프로산도, 수레시, 수바쓰, 알로롱, 비시누보도, 보디소프, 린롱, 수란존(방글라데시) / 김태식, 윤왕모, 이금순, 김명일(군선교)	

부 목 사 장석남 조원영 안용근 조동수 김익환

전도사 박미라 준전임전도사 강남희 이대원 교육전도사 허은 정기성 김예지 협동목사 심우진 전재홍 양정호
 선 교 사 전광혜(서아시아), 이은준 · 강해경, 양재성 · 이현주(카자흐스탄), 이경엽, 조남혜(방글라데시), 조범연 · 김희정, 우상식 · 김정욱(인도), 서광중 · 이성일(인도네시아), 김용진 · 황경혜(말라위), 김영호 · 서향정(러시아), 허창범 · 현미순(일본), 김낙형 · 오정녀(케냐), 김종일 · 백순미(외국인 노동자), 박명성(총회), / 이삭, 비스타파, 사지, 에녹(인도), 스프로토바로이, 필리몬, 프로산도, 수레시, 수바쓰, 알로롱, 비시누보도, 보디소프, 린롱, 수란존(방글라데시) / 김태식, 윤왕모, 이금순, 김명일(군선교)



“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

■ **마태복음 10:5-15**
 많은 사람들이 병든 몸과 지친 마음을 가지고 주님에게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돌보고 회복시킬 일꾼들이 부족했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랴’(9:37,38) 주님은 12제자를 선택하셨고 이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이에 열들을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라.’(막 3:14,15)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전도할 제자들을 훈련하시는 내용이 본문말씀입니다.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이면서 파송되는 공동체입니다. 부름 받고 모여 기도하고 말씀 듣고 훈련 받은 후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세상 속으로 흩어지는 디아스포라입니다.

1.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
 주님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셨습니다. 전도 대상을 내 민족으로만 특정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복음전도의 순서를 말씀하실 뿐 이방인전도 금지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해석합니다. 행1:8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한편으로 이스라엘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무슨 전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잃어버린 양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들 먼저 찾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잃어버린 많은 양들이 있습니다. 내 가족이나 친구일 수 있고 옛 신앙의 동지들일 수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2. **천국 복음을 전하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물리적인 공간이 아닌 예수님의 임재와 통치를 의미합니다. 눅17:21에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하였고, 마12:28에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임재하심과 다스리심이 이루어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사회가 신앙에 대하여 냉소적이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일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예수 복음에 구원이 있고 교회가 희망이라는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실 때 귀신을 쫓아내며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권능을 사용하여 천국 복음 전하는 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주님은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우리 역시 주님께로부터 받은 다양한 은사와 능력들을 복음을 위해 사용합시다. 그때에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귀신들이 물러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3. **염려하지 말라**
 제자들은 걱정이 많았습니다. 전도여행을 위한 경비도, 만날 사람들의 반응도 걱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금, 은, 동을 가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영접하고 유숙할 곳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믿음없는 걱정을 하다 보니 매사에 부정적이 되고 마음이 무겁고 지치게 됩니다. 미8장에 두 종류의 믿음이 나타납니다. 하인을 고쳐달라며 찾아온 백부장의 믿음은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고 칭찬하였습니다. 그런데 풍랑 만난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서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 파송된 예수님의 제자들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염려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마6장에는 물질 때문에 걱정하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가진 것이 많아서 어떻게 보관하고 지킬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둘째는 가진 것이 없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두고 매일 걱정하는 사람입니다.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걱정하지 말고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하나님께서 기다리심을 전합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민 주 손달익 목사 설교 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sider	Prayer
I 오전 9시	김익환 목사	최형열 장로
II 오전 11시	장석남 목사	양춘경 장로
III 오후 2시	조원영 목사	조원영 목사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 출 15:2...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찬 송 Hymn 4 다 함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함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 99(나라사랑)... 다 함 께
 * 송 영 Doxology 1 다 함 께
 기 도 Prayer 말 은 이
 찬 송 Hymn259(193)... 다 함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 마10:5-15 ...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함 께
 봉헌 Offering 다 함 께
 * 봉헌송 Offering Hymn634(70)... 다 함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찬 양 Anthem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함 께
 설 교 Sermon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손달익 목사
 * 찬 송 Hymn 528(318)... 다 함 께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함 께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찬 양 예 배

오후 4시 30분 · 인도: 전재홍 목사, 설교: 손달익 목사

목 도 다 함 께
 성 시시 96:1-2 인 도 자
 찬 송 288(204) 다 함 께
 기 도 라지용 집사
 찬 송 310(410) 다 함 께
 성 경 행 25:13-27 인 도 자
 세례식 손달익 목사
 찬 양 찬 양 대
 설 교 “베스도와 아그립바” ... 설 교 자
 * 찬 송 242(233) 다 함 께
 * 축 도 설 교 자
 * 주기도송 다 함 께

수요일예배

I부 오전 11시 ·인도: 조원영 목사
 II부 오후 7시 ·설교: 손달익 목사

기 도 ... I부: 허경화 권사 II부: 이소명 권사
 성 경 행 26:1-25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어찌 믿지 못하십니까?”... 설 교 자

홍해작전 특별새벽기도회

오전 5시 피아니스트: 홍해란·김양민·박수강·김복화2
 설 교 손달익 목사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봉 헌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부	가브리엘	백경화	서지원	장희원	윤주일	가브리엘		
II부	할렐루야	최낙기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핸드벨	송재월	
III부	임마누엘	유태왕	전지희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박래경	안효주	박수강	윤주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 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나나(대상 11:9)		
수요I부	호산나	구민영	김윤지	홍해란	금주의			
수요II부	시 온	최유현	김예지	조현정	성구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 배	오전 11시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4시 30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본당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본당

교 회 소 식

☛ 모 임

1. 홍해작전 본부회의 / 19일(주일) 오후 12시20분 802호
2. 한나 전도회 / 19일(주일) 3부 예배 후 502호

☛ 알 림

1. 101호 예배
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청년부 예배 : 오후 2시
2. 102호 예배
소망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10분-11시
3. 403호 예배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4. 501호 예배
중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5. 601호 예배 / 부서 모임
초등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10분 /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6. 602호 부서 모임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20분 / 세례 문답교육 : 주일 오후 1시-1시30분
7. 603호 부서 모임
사랑부 : 주일 오전 10시-11시 / 청년1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8. 609호 부서 모임
세례교육부 : 주일 오후 12시10분 /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9. 701호 예배
유년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10분
10. 702호 예배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10분
11. 706호 예배
유아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10분
12. 금일 세례식 실시 - 6월 세례(입교, 유아세례)식이 오늘 찬양예배 시 있습니다.

새가족소개

성 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성 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하은경	3-4	한나	박혜정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 결 혼

1. 김진수 군(김충성 성도, 전옥자 집사의 장남) 최영은 양(7교구, 최기영 집사, 김분택 집사의 장녀) / 6월25일(토) 오후 1시 라비돌웨딩강남 1층 오릴리아홀(02-538-3300)

☛ 장 례

1. 故 송남석 성도(6교구 송명원 집사 부친, 정승균 집사의 장인) / 6월16일(목) 별세 6월19일 발인

지난주 출석현황(인터넷 영상예배 포함)

주일1,2,3부	찬양예배	주일예배 합계	수요일예배	새벽기도
1,462명	418명	1,880명	618명	2,536명

🌳 성내기를 더디하라

회개해야 할 사람이 도리어 성을 내는 경우를 종종 본다. 허욕을 부리다가 가산을 탕진하고 법을 무시하다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무능해서 혼란을 초래했으면 회개하고 새출발을 할 것이지 성낼 일이 아니다.

고난과 역경이 왔다고 함부로 원망하고 성을 내는 경우도 있다. 제사장들의 음모와 가롯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가 포박되고 십자가에 못박힌 것이 하나님의 크신 경륜 속에서 되어진 일인 줄 뉘 알았으랴. 그 큰 뜻을 모르는 베드로가 억울하다고 칼을 휘두르면서 성을 낸 것은 부질없는 실수였다. 고난은 축복의 시작임을 알자.

감사해야 할 일에 성을 내는 것도 잘못이다. 하나님의 관용과 이웃의 행동을 못 마땅히 여기거나 내 뜻대로 안된다고 성을 내는 것은 성도의 자세가 아니다.

“주님, 우리에게 쉽게 성내는 마음보다 회개와 인내와 감사하는 마음을 주소서!”

-이종운 원로목사 신앙칼럼 '순례자'에서-

청 결 유 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힘씀시다.

에너지 절 약

불필요하게 전기를 켜놓은 복도와 화장실 전등을 끄시다.
 방을 사용한 후 나올 때 반드시 전기(전등, 플러그, 마이크 등)를 끄고 나옵시다.

주 일 성 수

주일은 예배와 전도하는 날입니다.
 가급적 회의를 줄이시고 예배와 전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